

신안군, 다문화가정 한국어시험 응시료 등 맞춤형 지원

결혼이주여성 324명...7개 섬지역 교류 공간 '다가온' 운영 한국 문화 적응·학업 더딘 자녀들 찾아 생활·교육 서비스도

신안군이 결혼이주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응시료를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에 나선다.

8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 여성은 지난해 말 기준 32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신안 안좌도에 10명 넘는 결혼이주 여성이 터를 잡았다.

신안군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이 한국 문화를 빠르게 적응하도록 7개 지역에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다가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안좌도 주민자치센터 안에 '다가온'을 새로 설치했다.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이전하면서 생긴 50㎡(15평) 공간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방과 후 아동 지도 등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신의도에 다가온이 마련된 이후 2019년 자은암태, 2020년 장산·도초·지도 등지로

확대 설치됐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가온은 지도, 암태, 자은, 도초, 신의, 장산, 안좌 등 모두 7곳이다.

다른 자치단체 '다가온'은 1~2곳 있는 데 반해 섬이 많은 신안은 다가온을 각지에 설치해 다문화가족의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

신안군 가족센터는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워하는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문화 적응이 더딘 중도입국 자녀를 찾아가 생활·교육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중도입국 자녀에게는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 학업 성취를 도와주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에게는 한국 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을 해마다 50명 이상 진행하고 있다.

신안군 가족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적응을 위한 첫 단계인 한국어 습득을 돕기로 했다.

올해 처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수수료(토픽 I



신안군 가족센터가 지난 3일 결혼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반을 만들어 개강식을 열고 있다.

4만~4만5000원, 토픽 II 5만~5만5000원)를 지원하고, 합격 축하금으로 15만~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응시생들이 시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재(교구) 지원 사업도 펼친다.

신안군 가족센터는 취학을 앞둔 자녀와 지역 아동에게는 취학 준비학습 지원(다배움), 다문화 이해 교육(다이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 10명을 찾아가 취학 후 학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기초 학습도 도와주고 있다.

언어발달이 느린 아동에게는 언어 평가, 교육 등을 지속해서 지원한다.

가족센터가 펼치고 있는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은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9곳 170여명을 대상으로 50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주민 소득을 높이는 햇빛 연금, 바람 연금, 햇빛 아동수당 제도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신안군은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한 결혼이주여성을 통·번역사로 양성해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신선의 신안군 교육복지과 팀장은 "결혼이주여성이 다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려면 의사소통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에 전액 군비 사업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올해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지원을 시작으로 참신한 정책과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군 천해·사등·초안마을 '생태마을 1번지'로 재탄생

농업환경 보전 지원 착수보고회 생태환경·농업유산 선순환 정착

영암군 학산면 천해마을, 사등마을, 초안마을이 올해 '생태마을 1번지'로 거듭난다.

영암군은 최근 군청에서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현장 지원조직 착수보고회'를 열고 천해·사등·초안마을에 대한 농업환경 보전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에는 천해·사등·초안마을 주민대표와 서영암농협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농업환경 보전 사업은 토양·용수·생태·경관 분야 환경 보전 활동을 하는 농민에게 국비를 지원한다.

영암군은 지난 2022년 농업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올해 사업 3년 차를 맞아 지난해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2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천해·사등·초안마을 사업에 대한 현장 지원조직에는 ㈜오르빌이 선정됐다.

현장 지원조직은 1년 동안 농업환경 진단과 마을 주민 교육·상담, 사업시행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한다.

다. 사업 성과관리와 사업추진 점검도 병행한다.

보고회에서 황의동 ㈜오르빌 대표는 천해·사등·초안마을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생태환경과 농업유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방안을 발표했다. 나아가 마을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바꾸는 농민 교육도 하기로 했다.

또 영암군과 마을주민 사이를 잇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 들녘경관적 지원사업 등으로 천해·사등·초안마을을 생태마을 1번지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무안군이 최근 연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 로컬푸드 직매장 입지 남악·오룡지구 최적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회

무안군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로 남악·오룡지구가 뽑혔다.

무안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무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회에는 김산 무안군수와 무안군, 농협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로컬푸드(직거래 농산물) 직매장 수요와 다른 지자체 사례, 입지·경제성 분석을 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용역 결과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 입지는 남악 또는 오룡지구로 분석됐다. 용역사는 기획 생산의 조직화가 원활히 진행된다

면 직매장이 중·소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보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참석자들은 용역사에 타당성 분석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직매장 실패 사례 분석과 농가의 수익 분석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나용석 삼합농협 조합장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이 확정되더라도 농가 조직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행정인 농협이든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협, 유관단체들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이달 중순 마무리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대한 정책 결정에 나설 계획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김현철(오른쪽) 완도부군수가 지난 5일 이마트 용산점에서 '반값' 할인하는 완도 전복을 고객에게 선보이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 전복 전국 이마트 90개 지점에서 '반값'에 판다

11일까지 50% 할인 판촉전

완도 전복이 전국 이마트 90개 지점에서 오는 11일까지 '반값'에 팔린다.

완도군은 이마트와 손잡고 오는 11일까지 '완도 전복 최대 50% 할인 판촉전'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완도 전복은 청정바다에서 나는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라 각종 비타민·철분·칼슘·칼륨·단백질

이 풍부한 '바다의 산삼'이라 불린다.

완도 해역에서는 이달부터 5월까지 품질 좋은 전복이 많이 출하되지만, 삼복 더위·명절보다 수요가 적어 전복 생산 여가 어려움을 겪는다.

완도군은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수산대전'에 힘을 보태 이마트에서 판촉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5일에는 김현철 완도부군수와 최재순 이마트 용산점장, 이승철 ㈜행복한전복 대표가 이마트

용산점에서 판촉전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전복 구매고객에게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완도 순살 전복을 증정했다.

김현철 완도부군수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완도 전복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길 바란다"며 "전복 흥수 출하로 인한 여가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완도 전복을 많이 찾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주 기자 jn@kwangju.co.kr

진도군 지난해 1억 이상 소득 어업인 376명

김·전복 등 양식어업 소득 증가

진도군은 지난해 기준 1억원 이상 고소득 어업인이 376명으로 나타났다. 8일 밝혔다.

2022년 371명에서 1.3% 증가한 것으로, 의신면이 14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군면 135명, 조도면 31명, 군내면 24명, 임회면 19명, 지산면 15명, 진도읍 7명 등이다.

업종별 고소득 어업인은 양식어업 종사자 323명(85.9%), 어선어업 종사자 14명(3.7%), 가공·유통 분야 18명(4.8%), 기타 21명(5.6%) 등이다.

또 1억이상~2억미만은 206명으로 전체

54.8%를 차지했고 2억이상~3억미만은 92명 24.5%, 3억이상~10억미만은 71명 18.9%, 10억이상은 7명 1.8%로 집계됐다.

진도군은 고소득 어업인의 증가 요인을 양식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군의 지속적인 어업활동 지원 등으로 꼽았다.

김의 경우 지난해 조수입 1천153억원, 전복은 1254억원을 기록해 양식어업인의 소득 증가에 일등 공신이 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역 어가의 양식어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양식어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암군 올 고향사랑기부금 석달만에 1억 돌파

왕인문화축제 기간 기부 줄이어

영암군은 올들어 석달만인 지난달 31일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1억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이같은 성과는 지난달 28~31일 열린 '2024 영암왕인문화축제' 기간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줄이 으면서 한 몫했다.

축제에서는 박찬모 재경영암군향우회장을 포함

해 오형근 재경영암군향우회장, 오남호 영암한국병원장이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임정빈 영암군농협지부장은 농협재경영암군향우회를, 서운중 NH농협 손해보험 부장은 농협재경영암군향우회를 대표해서 이 행렬에 동참했다.

자매결연도시인 영암군과 경남 산청군도 2년 연속 상호기부를 약속하고, 각 지자체의 250명 직원들이 참여해 2500만원 씩을 교차 기부키로 했다.

영암군의 올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기부가 662건으로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만원 이상 기부도 12건 3300만원에 달한다.

연령별 기부자는 40~50대가 가장 많은 전체 기부자 중 64%를 차지했다.

영암군은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자 예우방안을 마련하고,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소중한 기부금이 뜻 깊게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영암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목포시·전남영상위, '전남 배우' 100명 모집

목포시와 전남영상위원회가 도민을 대상으로 배우 10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의 보조출연자를 모집하고 교육하는 사업으로 지역민 참여를 통해 지역 영상산업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배우로 선발되면 전문 프로그램 활용과 전남에서 촬영하는 영화·드라마에 보조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조출연자 역량 강화 등 3회차에 걸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전남 동부권(순천)과 서부권(목포)으로 나눠

50명씩 교육하며, 목포 교육장소는 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이다.

교육 프로그램이 끝나면 수료증을 발급하고 전남 배우 DB(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향후 보조출연자로 출연할 기회가 주어진다.

개인 프로필 촬영 교육 과정에서는 전문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와 사진작가가 함께해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배우는 도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오는 14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